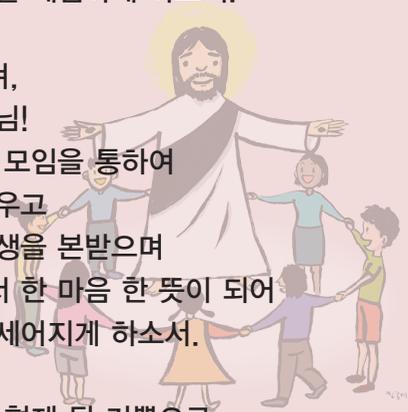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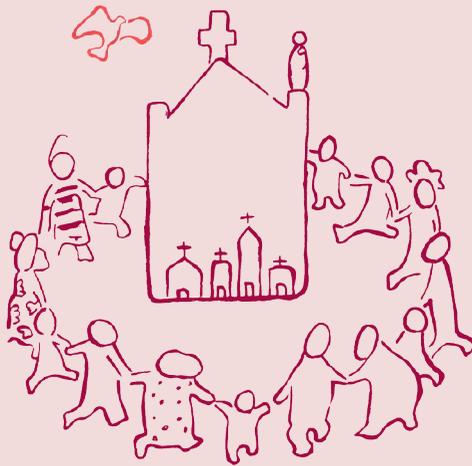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9 | 11 | 제121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 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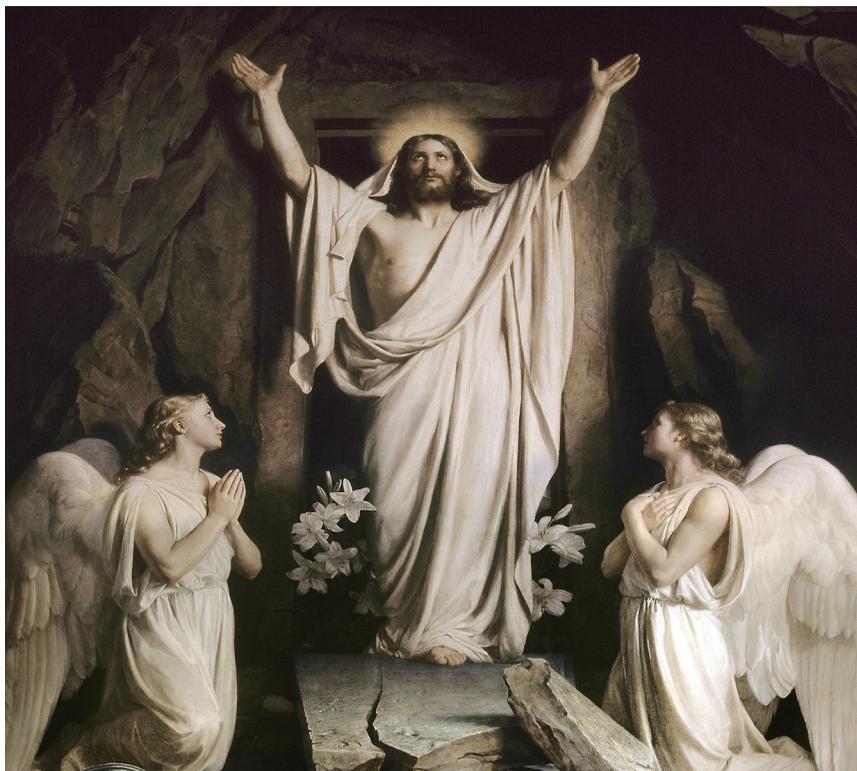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32주일(11월 10일)

부활 논쟁

(루카 20,27-38)



부활 논쟁

- 칼 하인리히 부로흐, 1873년, 동판에 유채, 덴마크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루카 20,38)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전능과 예수님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체에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육체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1. 10.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27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28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31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36 천사들과 같아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



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37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38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루카 20,36)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루카 20,38)

천국,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하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언

가 자유롭고, 보다 더 높은 세계로 향한 우리들의 꿈을 잘 표현해주는 예입니다.

그만큼 또 지금 우리의 현실이, 훨훨 날아다니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각박하다는 증거도 됩니다. 우리는 문득 파란 하늘을 대했을 때, 혹은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앞에 섰을 때, 바로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여 복닥거리며 살던 나의 삶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더 넓은 것, 영원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비록 한계 지어진 인간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영원의 세계를 꿈꾸어 봅니다. 때 묻지 않은 아이의 그림처럼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돛단배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꿈이 높은 영원의 세계로 날아다니길 빌어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27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33주일(11월 17일) 재난의 시작 (루카 21,5-19)



성전 파괴

- 니콜라스 푸생, 1637년, 유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1. 17.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6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소서.
- 주님, 고통과 시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 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



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루카 21,8)

유사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에 현혹된 적은 없나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문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문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갔다.

당나귀는 더욱 더 울부짖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 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정말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흙이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 남이 진흙을 던질 때 그것을 털어버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곤경의 우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맞게 된다.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와 같은 세상이 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6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 함안본당 5구역 1반 반장 백지현 이레네 —

저희 소공동체는 함안본당의 유일한 공소인 구읍(함읍)공소가 있는 함안면과 여항면을 포함한 구역입니다. 총 13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두세 가구에 부산, 마산, 대구, 창원, 진해, 장유 등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과 퇴직을 앞두고 귀촌하신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이사를 오셔서 적응하기에 쉽지 않으셨으나 소공동체 모임에서 마음을 나누며 기쁨을 얻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 반모임은 저녁에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정을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니 늘 20여 명 정도가 모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비 오던 어느 겨울 밤, 어두운 밤길에 집을 찾다가 작은 사고가 나면서 교통이 편리한 공소에서 모임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2~3년 전부터 공소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사용하지 않아 공소가 많이 낡아있었던 관계로 자주 모여 청소하고 풀도 뽑는 등 공소를 가꾸는 일을 저희 반 활동으로 정하였습니다.

한두 달마다 따로 모여 대청소를 했지만 곰팡이가 계속 생겼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몇 번의 모임 끝에 의견을 모아 대대적인 대청소를 했습니다. 경당과 주방의 벽지, 장판 등을 교체하고 작은 에어컨도 달며 내부를 새 단장하였습니다. 아담한 공소는 저희가 신앙생활과 정겨움을 나누는 편안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봄

에는 작은 꽃들이 만발하고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성모님께서 늘 저희를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오후 4시 노영환 마티아 주임신부님께서 공소미사를 집전하시고, 5구역 1반 소공동체에서 전례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공소 할머니들의 정성이 담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이 음식이 드시고 싶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안본당 5구역 1반 소공동체는 앞으로도 공소를 아름답게 가꾸며 하느님의 정을 나누는 소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행여 함안에서 진동방향으로 가시는 길이 있으시다면 한번 다녀가셔도 좋겠습니다.





소공동체 역할배분 3

이번 호에서는 역할배분 마지막 단계로 선교담당, 회계 담당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교담당의 역할

선교담당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소공동체 선교현황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선교담당은 “이번 중 저희 소공동체에 새롭게 전입된 신자는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냉담자이고, 한 분은 외딴교우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냉담자 회두 및 가정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 ① 월간/주간 별 구역.반 전출입 상황을 본당 사무실과 연락해 메모해 두거나, 반장에게 보고합니다.
- ② 구역.반 냉담자와 외딴교우 현황도 수시로 메모해, 가정방문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 ③ 구역.반 내 입교권면 활동을 수립한다. 본당 입교시기, 세례식 일자를 파악해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 ④ 역 주변, 공원 등에서 가두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 ⑤ 소공동체 선교일지를 따로 작성해둡니다.
- ⑥ 복음나누기 6단계의 활동 나눔 시, 각종 선교활동을 구성원들과 함께 세워볼 수 있습니다.

회계담당의 역할

회계담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말씀살기’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회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담당은 “이번 주에 마리아 자매님의 둘째 아들이 본당에서 혼배를 합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선물 구입을 위해 약간의 회비를 각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식의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소공동체 모임의 회비가 있다면 회비를 관리하고, 모임의 필요 시 예산을 세워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말씀살기’ 활동 나눔 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구성원들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밖에 구성원들의 축일, 경조사 등에 필요한 선물비를 책정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마산교구 신앙대학 제27기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가톨릭 신학과 철학, 영성을 바탕으로 평신도 신앙인의 자질 함양과 세상의 복음화 및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신앙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신앙대학 제27기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기 간 : 2년 과정(1, 8월 방학) 매월 첫(토) 13:30~(주일)16:00(1박2일)
- 과 정 : 2020년도-사회교리(박창균 신부), 교부학(최원오 교수),
그리스도론(강철현 신부), 신약성경(정연우 신부),
교회법(김정훈(도) 신부), 성사와 전례(김정우신부)
2021년도-영성신학, 윤리신학, 구약성경, 교회론, 성령론·마리아론, 철학
- 지원자격 : 영세한지 만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만 65세 이하)
- 졸업특혜 :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 개 강 일 : 2020년 2월 1일(토) 오후 1시(O/T 및 입학미사)
- 등 록 비 :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원, 4인실: 44만원)
- 교육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 지원마감 : 2019년 12월 31일(화) 까지
- 지원방법 :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입학 양식을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 보내실곳 :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